

>>> 우즈베키스탄 방문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소아과
김 기 혁 선생님

2000년 9월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방문 목적은 제 4회 중앙아시아 소아과학회에서의 plenary lecture와 타쉬켄트 소아의를과대학에서 2일간 소아신장학에 대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였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우즈베키스탄의 타쉬켄트 소아의를과대학이 2000년 6월 자매결연을 맺으며 연세의대 소아과학교실에서 교수진이 매년 방문하여 강의를 하기로 하였으며 우즈베크에서 소아과 의사가 연세의대를 방문하여 수련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첫 번째로 필자를 포함한 5명의 소아과의사가 우즈베크를 방문하여 학회와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로 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위치는 중앙아시아의 옛 실크로드 여러 길 중에서도 텐산 북로에 해당한다. 중국 서안에서 시작하여 고비 사막을 지나고 텐산 산맥을 넘어 만나게 되는 오아시스의 푸른 초원길이 있던 땅이 바로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이다. 동서양의 길목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2,500여년 동안 알렉산더 대왕, 아랍 그리고 칭기스칸의 지배를 받았다. 14세기에 이르러 위대한 티무르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우즈베키스탄의 국부인 그는 파키스탄, 이란에서 흑해 연안까지 대제국을 이룩하였다. 20세기초에는 소련방의 일원으로 편입되었다가 1990년 소련방이 와해되면서 구 소련방에서 탈퇴한 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을 창설하였다. 현재 독립국가연합(CIS)의 일원으로 우리 나라와는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면적은 우리 나라 남북한의 약 두 배이며 국토의 3/4은 평원, 나머지 1/4이 산악과 고원 그리고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도는 타쉬켄트이다. 인구는 2천 2백만 정도이며 약 100여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다. 이중 고려인이라 불리는 우리 동포가 약 20만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정책에 의해 연해주로부터 이곳으로 이주했다고 한다. 기후는 대륙성 사막 기후로 건조하고 큰 일교차를 보인다.

우리 일행은 첫날 우즈베크 타쉬켄트공항에 도착하여 우즈베크에서 의료봉사할

동을 펼치고 있는 필자의 의과대학 동기 고세중선생의 환영을 받았다. 고세중선생은 소아과전문의로 현재 우즈베크에서 열방친선병원이라는 의료봉사활동을 하며, 현지 의과대학생들의 지도 및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고선생의 안내로 숙소에 짐을 풀고 주 우즈베크 한국대사인 장훈대사와 저녁식사를 했다. 이때 처음으로 우즈베크의 전통 음식인 샤슬릭과 전통 빵인 리브쉬카를 먹어 보았다. 샤슬릭은 양고기를 꼬치에 꿰어 숯불에 구운 음식이며, 리브쉬카 빵은 둥글고 납작한 빵으로 우즈베크의 주식이라 한다.

도착 다음날부터 소아과학회가 시작되어 우리 일행은 학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각자 자기가 맡은 강의를 하였다. 중앙아시아 소아과학회는 과거 소연방에 속

해 있다가 독립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소아과 의사가 참여하여 주제 발표를 하는데 공용어는 러시아어를 사용하였다. 필자를 포함하여 러시아어권 이외의 국가에서 온 연사가 발표할 때는 영어로 발표하고 통역이 옆에서 러시아어로 통역을 해주었다. 통역을 맡은 사람들은 모두 소아의과대학 의사들과 학생들로 발표 전에 미리 내용에 대해 발표자와 의논을 하기 때문에 영어와 러시아어가 잘못 전달되는 일은 없었다. 학회 기간 중 점심을 학회장에서 먹었는데 보드카와 꼬냑이 제공되는 것이 색달랐다. 보드카는 러시아산으로 마실 만했는데 우즈베크에서 만든 꼬냑은 이름만 꼬냑이고 맛은 정체불명의 맛이였다.



소아과 학회장 입구

이슬람학자들은 사마르칸트를 '이슬람세계의 진주'라고 불렀는데 비록 지금 사마르칸트는 '세계의 중심'이라고 불리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슬람세계의 진주'로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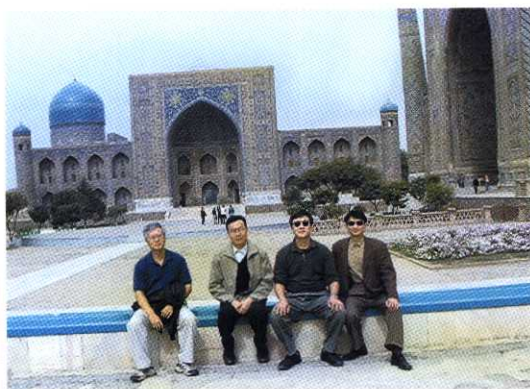
학회 3일째에는 학회장을 떠나서 타슈켄트 소아의 대로 향했다. 타슈켄트 소아의대는 구 소련연방시절 소련 전체에서 필요한 소아과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대학으로 당시에는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타슈켄트 세 곳에서 소아과 의사를 배출하여 소련방 전역으로 공급했다고 한다. 현재는 타슈켄트 제1의대, 제2의대와 함께 제3의대로 불리며 아동병원과 같이 운영되고 있었다. 넓은 부지에 단층 건물들이 띄엄띄엄 들어서 있으며 인적이 드물어 병원이나 대학보다는 군대 막사 같은 인상을 받았다. 첫날은 신장학 과장인 Dr. Shripov의 안내로 병원과 입원 환자를 둘러본 후 특강을 1시간 하였고, 둘째 날은 소아신장과 외래에서 같이 진료를 하고 다시 특강을 1시간 하였다. 병원에서 같이 환자를 보며 느낀 것은 투석에 대한 경험은 많은데, 해부병리가 뒷받침이 안되어 신장조직검사를 하고서도 정확한 진단을 못 내리는 것 같았다. 병원 근무시간은 오후 2시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의사나 학생이나 각자 돈을 벌기 위해 의사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환자를 보거나 개인의원에서 환자를 보며,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한다. 둘째 날 점심에 그 병원 의사들이 식사 대접을 한다고 교외로 나가서 벨로프라는 전통 음식을 먹어보았다. 이 음식은 우리나라 볶음밥 비슷한 것인데 결혼식, 명절, 파티 등 좋은 날에는 빠지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한다. 양고기와 당근 썬 것을 볶고 여기에 쌀과 특별한 향, 건포도 등을 넣어 만들며 점심에 먹기

위해 아침부터 요리하며 어른 한 사람이 들어가도 될 만큼 큰솥에서 만든다고 한다. 아무 음식점에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음식점이 따로 있다고 한다.

학회와 소아의대에서의 강의가 끝난 다음 일행은 고대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교역의 중심지였으며 우즈베키스탄의 제2의 도시인 사마르칸트를 방문하였다. 타슈켄트에서 서남쪽으로 27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아스팔트로 길이 잘 포장되어 있어 우리 일행은 승합차로 4시간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 파미르고원의 서쪽 끝에 해당하는 해발 270m의 사막 평원 오아시스에 자리잡은 사마르칸트는 중앙아시아 철도 교통의 중심지이고, 농산물 가공업, 피혁공업, 방직공업이 발달해 있으며 과거 유적을 복원하는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2500년을 자랑하는 고도의 영화가 차츰 되살아나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고 한다. 이 도시는 이미 기원전 500년경 다리우스 대제에게 정복된 뒤 오랫동안 페르시아 제국의 일부가 되었고, 기원전 329년에는 마케도니아 출신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다시 정복되었으며 8세기 아랍에 점령되며 광범위하게 이슬람의 문화가 영향을 미쳤고 1220년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골군에 의해 구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오늘날의 사마르칸트는 몽골의 침입이 있은 뒤 그 옆에 세워진 신도시인 셈이다. 14세기 파키스탄, 이란에서부터 카프카스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티무르(1336~1405)는 사마

르칸트에 도움을 정하고 이 도시를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키웠다고 한다. 현재 남아있는 건축물의 대부분은 티무르와 그 후계자들의 시대에 건설된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원정을 떠나면 그 지역의 유명한 예술가와 건축가들을 끌고 와 아름다운 도시로 꾸미도록 지시했다. 오늘날 사마르칸트를 화려하게 만드는 구리미르(티무르의 무덤), 샤히진다(귀족들의 공동묘지), 레기스탄(모스크로 둘러싸인 중앙광장)도 모두 이때에 세워진 것이다. 특히 그는 푸른색을 좋아해 사마르칸트를 푸른 도시로 만들었는데 도시 곳곳에 산재한 중세 모스크와 왕족들의 묘들이 저마다 푸른색 돔을 머리에 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푸른색은 청록빛깔의 터키석장식이 연출해 내는 신비감의 근원이기도 하다. 동시대 이슬람학자들은 사마르칸트를 '이슬람세계의 진주'라고 불렀는데 비록 지금 사마르칸트는 '세계의 중심'이라고 불리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슬람세계의 진주'로 남아 있다. 현재 소련에서 독립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 이들 유적지를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있다.

일정의 마지막날 일행은 타쉬켄트 근처의 고려인촌을 방문하여 한인 교회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의료 봉사를 하고 고려인 마을에서 개고기를 대접받고 귀국길에 올랐다.



사마르칸트에서

비록 일주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우즈베키스탄의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 아름다운 여인들과 친절하고 순박한 인심은 잊을 수 없으며 기회가 되면 꼭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은 곳이다.